러시아 '파스타 면발 신봉자'

metro

메트로 2013년 8월 27일 화요일 제2601호 www.metroseoul.co.kr

'킬날 크로스' 김보경 평점7

등록금 못구해 2학기 쉴래요

NEWS p/02

경찰에 1만번 넘게 장난전화

NEWS p/04

일본팬 8만 "근광 보자"

ENTERTAINMENT p/16

메트로 2013년 8월 27일 화요일 [illegible]

이효리 "결혼준비는 언제"

벌써 2승했는데 상금은 '0'

빨갛게 익어가는 가을 남부지방의 그르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비구니 스님들이 26일 경남 함양군 휴천면 지리산 자락 견불사 앞 마당에서 재배 수확한 고추를 가을 햇살에 말리고 있다. 기상청은 서울 등 일부 지역에 내려졌던 폭염주의보를 26일 만인 이날 오후 4시 모두 해제했다. /뉴시스

"잡스만 특허 내나요" 당돌한 특허퀸

2년 만에 13건 출원한 유성옥씨 "잘나가는 사람 관찰하는게 비결"

특허출원.

일반인에게는 그야말로 꿈같은 이야기다. 기발한 아이디어가 떠올라도 개발특허로 연결시키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 또는 '이미 특허가 있을거야'라며 지레 포기하거나 출원 절차나 방법을 몰라 감히 도전할 엄두조차 내기 어려운 영역이기도 하다. 그런데 유명한 과학자나 발명가가 아닌 평범한 여성 직장인이 2년이 만에 13건의 특허를 출원했다면 믿을 수 있을까. 모바일 오피스 전문업체 인프라웨어에서 '특허여왕'으로 불리는 유성옥(32·사진) 과장을 만나 그 만의 비법을 들어봤다.

"2011년 업무 때문에 회의 참석과 출장가는 일이 잦았습니다. 그러다보니 정리가 불가능할 정도로 많은 자료를 받게 됐는데 나중에 찾으려고 하니 무척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문서명이나 내용이 아니라 '2013년 8월 27일 기업연수원'과 같이 시간 장소 등 이벤트로 문서를 검색하면 편하겠다는 생각이 떠올라 이러 달에 걸쳐 아이디어를 구체화한 후 특허를 출원했습니다."

유 과장의 특허는 이처럼 업무처리 도중에 맞닥드린 작은 불편함에서 시작한다. 이를 그냥 지나치지 않고 개선책을 찾다보면 뜻밖의 '보물'을 발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 문장 내 필요한 부분만 선택 복사해 스마트폰으로 전송하는 특허출원도 남편에게 문자메신저를 보내다 떠오른 아이디어란다.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데다 남편이랑 IT 모바일에 대한 이야기는 자주 나눕니다. 스마트폰으로 메시지를 주고 받다보니 한 문장 내에 필요한 부분만 다중 복사할 수 없을까란 생각이 어느 날 문득 들었죠. 남편의 도움을 받아 특허를 출원해 더욱 의미가 깊습니다."

이같은 노력 덕분에 유 과장이 지금까지 출원한 특허는 13개. 올들어 특허 출원을 준비 중인 것도 3~4건에 달한다. 이 중 1~2건은 조만간 정식 등록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런 유 과장도 2년여 전까지는 특허를 다른 세상 이야기로 여겼다. 숙명여대 컴퓨터과학과를 졸업하고 줄곧 IT업계에 근무해왔지만 특허출원은 애플 창업자인 고 스티브 잡스와 같은 전문가만 가능할 것이란 편견에 빠져 있었다. 하지만 업무차 만난 외국의 여러 기업인들을 통해 애플의 둥근 모서리가 특허로 인정받은 것처럼 단순한 것도 특허로 등록되는 다양한 사례를 접하게 되면서 '나도 한번 해볼까'란 용기가 생기기 시작했다.

특히 보상체계까지 만들어 특허 출원·등록을 장려해 320여건의 시원 특허 출원을 자랑하는 회사 분위기도 유 과장의 도전의지를 불태웠다.

/손진영기자 son**

유 과장은 특허 아이디어를 얻는 자신만의 비법도 살짝 공개했다. 시간이 날 때마다 눈을 크게 뜨고 잘되는 서비스, 잘나가는 사람을 유심히 관찰한다는 설명이다.

"예전부터 잘되는 '남'에 대한 관심이 많았어요. 특허 출원을 시작한 후부터는 좋은 서비스 기능 만들 등을 발견할 때마다 장점은 물론 개선책까지 고민해 문서로 정리했죠. 특히 간단한 것이라도 그림으로 아이디어를 구체화하는 습관을 기르다보니 하나둘 특허 출원이란 선물을 안겨주기 시작했습니다."

"인생 역전 보다는 잡스가 스탠퍼드대 졸업식에서 들려준 '점을 이어라(Connecting the dots)'란 말을 믿는다는 유 과장은 "남 잘되는 것을 부러워하는 시간에 작은 것부터 직접 도전한다면 특허라는 거대한 산도 누구나 정복할 수 있다"고 활짝 웃어보였다.

/[illegible]기자 [illegible]@metroseoul.co.kr

한가위 3900원짜리 '마음'도 받아주실거죠?

1만원 이하 초저가 선물세트 지난해보다 매출 3~4배 늘어

6200만원 짜리 와인과 400만원대 홍삼, 300만원 짜리 굴비세트 등 고가 추석선물이 백화점에서 완판 행렬을 잇는 가운데 온라인쇼핑몰과 대형마트에선 1만원도 채 되지 않는 '초저가' 선물들이 잘 팔려 큰 대조를 이루고 있다.

3900원짜리 식용유 세트와 8900원짜리 비누·샴푸 세트, 9900원짜리 참치 캔 세트. 오픈마켓 11번가에서 최근 인기 있는 1만원 미만 가격대의 초저가형 선물들이다.

26일 11번가에 따르면 올해 추석선물 기획전에 나온 제품 가운데 1만원 이하 초저가 제품 비중이 40%로 지난해 추석 시즌보다 19% 늘었다. 11번가 측은 "경기불황 속에 1만원 장벽이 무너진 초저가형 상품들이 쏟아지며 명절 특수를 누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대형마트에서도 초저가 추석 선물세트가 매출을 이끌고 있다.

이마트는 지난 19~25일 진행한 추석 선물세트 예약판매 실적을 분석한 결과 1만원 이하의 추석 선물세트 매출이 지난해보다 4배 이상 늘었다고 26일 밝혔다. 3만~5만원대의 중저가 선물세트 매출 또한 3배가 넘는 242.7% 증가했다.

롯데마트에서도 지난 12~25일 추석 선물세트를 예약 판매한 결과 1만원 이하 제품 매출은 지난해보다 3.5배 가량 증가했고, 3만원대 이하 실속형 선물세트 매출은 지난해보다 2.6배 뛰었다. 이 기간에 팔린 전체 선물세트 중 3만원대 이하 제품의 비중은 무려 92.4%나 됐다.

지난 5일부터 예약판매를 시작한 홈플러스에서도 1만~3만원대 커피·통조림·식용유 세트 등의 매출이 전체의 80%를 차지했다.

/정충신기자 [illegible]

"등록금 못 구해 2학기 휴학"

대학생 10명 중 3명꼴 84% "졸업 못할까 불안"

대학생 10명 중 3명은 등록금 마련이 어려워 2학기 휴학을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취업포털 사람인이 대학생 271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응답자의 27.3%가 이같이 답했다고 26일 밝혔다.

응답자의 83.8%는 금전적 문제로 복학이나 졸업을 못할 것 같다는 불안감도 느끼고 있었다.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예상 휴학 기간은 '1년 이내'(55.4%)로 가장 많았고, '6개월'(24.3%), '2년 이상'(12.2%) 순이었다.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휴학 기간에 아르바이트를 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때 일을 선택하는 가장 큰 기준은 '노동 강도 상관없이 높은 임금' 여부(44.6%)였다.

한편 응답자는 학비 마련을 위해 휴학하는 스트레스로 '졸업이 늦어진다는 부담감'(62.2%·복수응답)을 첫 번째로 꼽았다.

이어 '돈을 모아야 한다는 압박감'(60.8%), '학업 외로 시간을 낭비한다는 불안감'(56.8%), '취업 연령이 높아지는 것에 대한 조급함'(54.1%), '학비 걱정 없는 사람에 대한 상대적인 박탈감'(48.6%) 등을 거론했다.

사람인 관계자는 "등록금이 학업의 최대 고민인만큼 범정부적인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윤희기자 unique@

국민연금 6개월 이상 안낸 특별관리 대상 고소득자 8만여명

연예인 297명 '관리대상'

연예인·프로선수·전문직 종사자 등 고소득자들의 국민연금 체납액이 4000억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기윤 새누리당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 올해 초부터 7월 말 현재 연예인·프로선수·자영업자 등 국민연금 특별관리 대상자 8만1522명의 체납액이 4197억원에 달했다고 26일 밝혔다.

특별관리 대상자는 체납기간 6개월 이상, 종합 과세금액 연 2300만원 이상인 체납자로 구성되며 공단은 이들을 별도로 관리한다.

업종별로는 올해 7월 기준으로 일반 자영업자 규모가 8만1046명으로 가장 많고 연예인 297명, 프로선수 288명, 전문직 종사자 191명 순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프로선수와 전문직 종사자는 소폭 줄었고 일반자영업자와 연예인은 각각 30여명 증가했다.

체납액은 자영업자가 4156억83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국민연금 부과 금액 대비 징수율은 4.9%로 특별관리 대상자들 중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프로선수 체납액은 17억2900만원, 징수율은 7%였으며 연예인 체납액 14억원, 징수율 10%로 나타났다. 전문직 종사자(191명)들은 체납액 19억1000만원, 징수율은 17.8%로 나타났다.

강 의원은 "현행 국민연금법상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외에 별다른 실효성 있는 방안이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향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실효성 있는 징수권 확보 수단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유라기자 yoora@metroseoul.co.kr

퇴임식 생각 많은 감사원장 양건(가운데) 감사원장이 머리, 짐은 어어 26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감사원에서 이임식을 마친 뒤 기념촬영에 앞서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

전세대란 빚내서 넘기라는 정부

기자 수첩

김현지 <경제산업부 기자>

요즘 둘만 모이면 화제는 온통 '전셋값 대란' 얘기뿐이다. 전셋값 고공행진은 여전히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역대 최고 수준이다.

올 가을 전세 재계약을 앞둔 세입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한숨부터 절로 나온다. 10월 조 전세 만료를 앞둔 서울 강서구의 아파트 세입자 이모씨는 집주인으로부터 전세 대신 월세로 전환해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다른 전세 물량 자체가 없다 보니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따를 수밖에 없는 노릇이다. 매달 들어가는 생활비도 빠듯한데 월세로 바꾸자니 눈앞이 깜깜하다. 부동산 전문가들 조차 올 가을 전세난이 더욱 극심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정부의 미온적인 자세다. 정부는 전세 대출을 확대해 서민들의 전셋값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발표했지만 정작 시장 상황은 다르게 움직이고 있다. 전세 물량은 한정돼 있는데 대출 문턱만 낮아지다 보니 전셋값만 오르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정부가 내놓은 정책은 수요만 자극하는 꼴이 됐다. 집주인이 선호하는 월세 전환을 막기 위해 세입자들이 저리로 대출을 받아 전셋값을 올려주고 전세를 유지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로 인해 전세대출이 늘어나면서 가계의 이자부담이 증가하고 소비는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제 '미친' 전세대란을 바로잡는 것은 정부의 몫이다. 제발 서민들에게 필요한 정책으로 부동산 시장을 바로 잡길 바란다.

강서구·中상하이 자매결연

서울 강서구(구청장 노현송)는 27일 중국 상하이시 창닝구를 방문, 강서구-창닝구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양 도시간 실질적인 교류협력 방안을 논의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강서구 생활체육대표단이 30일부터 3박4일 일정으로 창닝구를 방문, 테니스·배드민턴·탁구 등 친선경기를 펼친다.

사회적경제 센터 리모델링

서울 동작구(구청장 문충실)는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 구축계획'을 수립, 10월 개관을 목표로 리모델링을 추진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는 흑석동 주민센터 1층에 마련, 창업 사무실·교육실 등을 운영한다. 9월 중 인테리어 공사와 입주기업 모집공고를 실시한다.

육사 '3금제도' 강화 고현규 육군사관학교 교장이 26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브리핑실에서 국가인권위원회에 개선 권고를 받아온 3금 제도를 강화한 방침의 육사 제도 등 혁신 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뉴시스

공해유발 경유차 '스톱'

서울시, 7년 넘은 1만5650대 저공해 조치 안하면 과태료

서울시는 7년 이상 된 승합차나 트럭 버스 1만5650대에 대해 내년 2월까지 저공해 조치를 의무적으로 시행키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저공해 조치를 받은 차량은 매연저감 장치 부착 또는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하거나 조기폐차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

서울시의 저공해 의무를 통보받은 차량은 6개월 이내에 환경부 인증을 받은 장치 제작사를 통해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서울시는 이 경우 소요비용 90%를 지원하며 환경개선부담금 3년 면제, 배출가스 정밀검사 3년 면제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또 배출허용기준을 유지할 수 없거나 정비비용이 과다한 차량이 조기 폐차를 결정하면 보험개발원 산정 차량기준가액의 80%를 보조금으로 지급한다.

기간 내에 저공해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 300만원을 내야 한다.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운행하다가 무인카메라(CCTV) 등에 단속되면 1개월 이내 저공해조치를 해야하며 미이행시 1차 경고 후 위반 시마다 20만원씩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주요 간선도로 6곳에서 22대의 무인카메라를 이용해 올해 들어 지난달 말까지 2838대의 저공해 조치 미이행차량을 단속했다고 설명했다.

/송효근기자 grass100@metroseoul.co.kr

상봉후보 탈락 할머니의 눈물 남북 이산가족찾기 신청을 한 조갑금 할머니가 26일 서울 중구 대한적십자사에서 1차 상봉 후보 탈락 사실을 확인한 후 눈물을 흘리고 있다. /연합뉴스

"日 성찰 필요" 반총장 일침

우경화 움직임 우회 비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일본의 평화헌법 수정 움직임에 대한 유엔의 공식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일본 정부, 정치 지도자들이 아주 깊은 성찰과 국제적인 미래를 내다보는 비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을 방문 중인 반 사무총장은 26일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앞으로 역사를 어떻게 인식해서 올바른 역사가 미래 지향적으로 선린 국가관계를 유지할 수 있느냐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이 같이 답했다.

최근 일본 정부의 우경화 조짐에 대한 우회적 비판을 한 것으로 읽혀 주목된다.

반기문 유엔 총장이 26일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기자회견 도중 생각에 잠겨있다. /연합뉴스

또 한·중·일 3국의 역사 인식 문제와 관련한 갈등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동북아 지도자들이 동북아 및 아시아 세계 공존공영을 위해 어떤 일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해 조금 더 넓은 시각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유리기자

출생아수·합계출산율 추이

신생아 '흑룡·황금돼지 효과'

합계출산율 꾸준히 증가

신생아 출산율이 최근 3년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은 "2012년 출생통계"를 통해 지난해 출생아수가 48만5000명으로 2011년 47만1000명보다 1만4000명(2.8%) 증가했다고 26일 밝혔다.

출생아수는 2008년 46만5900명, 2009년 44만4800명으로 감소했으나 2010년 47만200명을 기점으로 최근 3년 연속 증가했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수인 합계출산율은 1.297명으로 2001년(1.297명) 이후 최고치다. 2010년부터 3년 연속 증가세도 이어갔다.

인구 1000명 당 출생아수(조출생률)는 9.6명으로 2011년 9.4명보다 0.2명 늘어났다. 하루 평균 출생아 수는 1324명으로 같은 기간 33명 증가했다.

통계청은 인구 규모가 큰 베이비부머 에코세대(1979~1983년 출생)가 출산 핵심연령이 되면서 출산율이 높아진 것으로 분석했다. 심리적인 효과로 2012년은 흑룡해 효과로 결혼 건수가 늘었고, 쌍춘년(2006년) 황금돼지해(2007)에 결혼한 이들이 둘째 아이를 출산하는 시기와도 맞물렸다.

통계청은 "출산율이 올랐지만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니다"며 "OECD 평균 합계출산율은 1.70명으로 한국(1.3명)은 초저출산국가 경계선에 있다"고 분석했다. /조용학기자

근로복지공단 근로자 휴양콘도 지원제도 · 전국 25개 지역 유명 콘도

일년내내 40~50% 싼 콘도 있다? 없다?

주5일 근무제 정착, 주5일 수업제 실시 등과 함께 삶의 질과 웰빙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여가생활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2010 국민여가활용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시간·경제적 여유가 생긴다면 하고 싶은 여가활동으로 여행(36.2%)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희망 여가활동의 으뜸인 "여행"을 떠나고 싶어도 숙박비 등 만만치 않은 비용 때문에 망설이는 직장인들이 있다면 근로복지공단의 휴양콘도 지원제도를 눈여겨 볼 만하다.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들에게 대명콘도, 리솜, 한화콘도 등 전국 25개 지역 유명 콘도 시설을 저렴한 비용(반인 회원가)으로 연중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공단은 근로자와 그 가족이 만족스런 여가활동을 누리고 이를 통해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살도록 지원하고자 1998년부터 근로자 휴양콘도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공단 휴양콘도는 주말과 성수기에는 월평균 임금 190만 원 이하 근로자, 평일(월요일~목요일)에는 급여 수준과 상관없이 모든 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포함)가 이용 가능하다. 고용·산재보험 가입 사업장은 교육·워크숍 목적으로도 이용할 수 있다.

콘도 이용료는 1박 기준으로 4만6200원에서 11만8800원으로 콘도사별로 차이가 있으니 일반 이용료보다는 최대 40~50% 정도로 저렴하다.

이용료가 저렴하다 보니 올해 상반기 이용 신청건수는 7154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 증가했으며 이용실적도 전년대비 10% 이상 증가했다.

공단은 퀴즈 이벤트나 콘도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휴가철 맞이 이벤트 등을 진행하여 CGV영화관람권 등을 제공하고 있다. 향후 특별 이벤트 등을 통해 콘도 숙박권 등도 제공할 예정이다.

◆ 회원가입 후 온라인 신청

근로자 휴양콘도 이용 희망자는 근로복지서비스(http://welfare.kcomwel.or.kr)에 회원가입 후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콘도 신청 절차, 이용 방법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단 고객지원센터(☎1588-0075)로 문의하거나 근로복지넷(http://www.workdream.net)에 접속하면 알 수 있다. /김유리기자

112에 1만번 넘게 장난전화

여경이 받으면 음란 발언 지적장애 20대남성 덜미

1만여차례에 걸쳐 112에 음란전화등을 한 이모(26·무직)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지방경찰청은 이씨가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8개월간 휴대폰 3대를 이용해 1만795차례 112에 전화를 걸어 남성경찰관이 받으면 아무 말 없이 끊거나 욕설을 하고 여성경찰관이 받으면 음란한 말을 해 수치심을 유발시킨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은 24일 오후 2시25분께 안성시 죽산면에서 낚시를 하고 있던 이씨를 검거했다.

지적장애 2급인 이씨는 검거 당일에도 무려 174차례에 112에 장난전화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씨는 당일 음란전화를 받은 한 여경이 성적수치심을 참아가며 11분 넘게 통화하면서 끈질기게 이씨가 있는 위치를 확인해 덜미가 잡혔다.

서울메트로 마이스터 선발

서울지하철 1~4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메트로는 지하철 달인인 '2013 서울메트로 마이스터'를 선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서울메트로는 각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지식과 기술력을 보유한 직원을 선발, 26일 서울메트로 창립 32주년 기념식에서 시상했다.

선발분야 역무 신태식(52·문래역), 차량 김왕구(45·신정차량사업소), 승무 이경훈(52·지축승무사업소), 기술 김종수(44·궤도신호사업소)씨 등이 선발됐다. /김유리기자

무려 2076일 만에 '재능선생님' 복귀

'최장기 비정규직 농성' 재능교육 노사분규 타결

6년 가까이 노사 갈등을 빚으며 국내 최장기 비정규직 농성 사태를 빚어온 재능교육 노사가 극적으로 해고자 전원복직과 단체협상 원상 복구에 합의했다.

재능교육 노사는 26일 서울 혜화동 본사 사무실에서 장기 농성 문제 해결을 위한 최종 합의문 조인식을 열었다.

재능교육 노조는 이날 "2007년 12월 21일부터 시작한 2076일간의 농성 투쟁을 마무리했다"며 "그동안 참 많이 울었는데 막상 합의안이 통과되니 담담하다. 내년부터 적용될 새로운 단체 협약을 체결하는 과제가 아직 남아있다"고 밝혔다.

재능교육의 분쟁 사태는 2007년 12월 사측이 임금 삭감 등 재교섭 문제를 두고 노조원들과 갈등을 빚으면서 시작됐다. 이후 노조의 천막 농성과 노사 양측의 법적 대응이 이어지며 5년 넘게 악순환이 되풀이 됐다.

하지만 지난 19일부터 3일간 노사 양측 교섭위원이 집중교섭을 벌여 단체협약 회복과 해직자 12명 전원복직 등 잠정합의안을 끌어내 극적으로 타결됐다. /정연준 기자

'축하합니다' 국내에서 비정규직 문제로 최장기 농성을 한 여민희·오은주 등 재능교육지부 조합원이 농성 2076일만인 26일 사측과 해고자 전원복직, 단체협상 원상복구에 합의했다. 지난 2076일간 사투를 벌였던 서울 혜화동 성당 종탑에서 내려와 동료로부터 축하 케이크를 받고 있는 여씨와 오씨 /연합뉴스

개성공단 기업들 설비보수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26일부터 공단 설비 정비·보수에 들어갔다. 이날 개성공단 입주기업인 492명은 차량 258대에 나눠 타고 경기도 파주시 남북출입사무소(CIQ)를 통해 출경했다.

우선 전기·전자, 기계·금속 등은 오전 8시, 섬유·신발 등 기타 생산업종 등은 오전 9시께 설비 보수를 위해 공단으로 들어갔다. 전자·기계 업종은 이날 오후 5시30분, 섬유·봉제 업종은 6시30분께 복귀한다.

박영준 원전비리 소환조사

박영준(53) 전 지식경제부 차관이 27일 부산지검 동부지청 원전비리 수사단에 소환돼 조사를 받는다. 민간인 불법사찰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박 전 차관은 26일 낮 1시께 부산교도소로 이감됐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박 전 차관은 수사 결과에 따라 참고인이 될 수도, 피의자가 될 수도 있다"면서 "충분히 수사한 후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늘의 역사 today in history

그림 박상철

'로마의 휴일' 개봉

1953년 8월 27일 윌리엄 와일러 감독의 영화 '로마의 휴일'이 개봉됐다. 유럽에 있는 작은 왕국의 공주 앤과 미국의 신문기자 조 브래들리가 하루 동안 로마에서 돌아다니는 에피소드를 극화한 로맨틱 코미디 영화다. 당시 신인배우였던 헵번은 이 영화로 단숨에 일약 스타가 됐다. 극중에 스타일리시한 헵번 머리가 유행했다. 이 영화의 성공으로 젊은 여성들 사이에 숏 커트가 유행하는 등 여러 헵번 스타일을 탄생하기도 했다.

최저가 도전! 반짝 중국여행

EVENT	상품	일정	가격
01	상해/항주/주가각 ▶8월~9월 매일출발(일부날짜 제외)	4일	199,000부터
02	장사/장가계/원가계 ▶8월~9월 매일출발(일부날짜 제외)	4일/5일/6일	389,000부터
03	북경 ★만리장성/마사지 ▶8월~9월 매일출발(일부날짜 제외)	4일	150,000부터
04	대만(야류,온천,화련) ▶8월~9월 매일출발(일부날짜 제외)	4일	599,000부터
05	난주(란주)/황하석림/사파두사막 ▶8월~9월 매일출발(일부날짜 제외)	5일	599,000부터

반짝 세일이란?
경쟁력 있는 항공 요금으로 생성된 출발일이 임박한 상품을 정상요금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실속있는 상품 구매 서비스**입니다

최저가 도전! 반짝 동남아여행

EVENT	상품	일정	가격
01	방콕/파타야 ▶8월~9월 매일출발(일부날짜 제외)	4일/5일/6일	249,000부터
02	캄보디아(앙코르왓) ▶8월~9월 매일출발(일부날짜 제외)	4일/5일	499,000부터
03	휴양지의 여왕 푸껫 ▶8월~9월 매일출발(일부날짜 제외)	5일/6일	379,000부터
04	세부 ▶8월~9월 매일출발(일부날짜 제외)	4일/5일/6일	349,000부터
05	보라카이 ▶8월~9월 매일출발(일부날짜 제외)	4일/5일	349,000부터

최저가 도전! 반짝 일본여행

EVENT	상품	일정	가격
01	규슈 온천여행 ▶8월~9월 매일출발(일부날짜 제외)	3일	399,000부터
02	오사카 ★고베야경 ▶8월~9월 매일출발(일부날짜 제외)	3일/4일	449,000부터
03	도쿄/시즈오카(하코네) ▶8월~9월 매일출발(일부날짜 제외)	3일/4일	499,000부터
04	대마도 부산출발 ▶8월~9월 매일출발(일부날짜 제외)	2일/3일	149,000부터

예약문의 | 국번없이 전국 어디서나!

☎ 1577-1212

강남점 1600-6963

www.hanatourist.com

metro Russia

Уверовавших в лапшу разогнали

metro Chile

ALMA captó nacimiento de una e

희레 사막서 '별 탄생과정' 카메라 포착

유럽남부관측소(ESO)는 최근 칠레 북부 아타카마사막에서 세계 최대 전파망원경 알마(ALMA)가 포착한 이기별(Herbig-Haro)의 모습을 공개했다. 사진에는 별이 생성되는 순간 분출되는 분자 형태의 주황빛 가스가 선명하다. 이 사진은 그동안 별의 탄생을 담아 낸 사진 중 가장 학술적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metro HongKong

馬工作室「亂到爆」

홍콩무협만화 '풍운' 완결편 곧 나온다

의천도룡기, 풍운 등의 무협대작들로 한국에도 잘 알려진 홍콩 만화계의 거장 마영성(馬榮成)이 지난 24년간 연재한 풍운의 완결편을 내기로 결정했다. 그는 작업을 마무리한 뒤 다음달 말부터 도쿄 만화가 리즈창과 함께 완저이의 동인기지에서 제작 완성이 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파스타 면발을 믿~습니다!

'스파게티 괴물교' 신도들 모스크바 도심서 시위 러시아정교회 신자들 케첩 뿌리며 정면충돌

"스파게티 면을 신이시여! 저희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최근 러시아 모스크바 도심에 국수 건질 때 쓰는 뜰채를 머리에 뒤집어 쓴 30여 명이 집결, 지나가던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됐다.

이들은 파스타파리안(Pastafarian)이라고 불리는 '스파게티 괴물교'의 신도들로 날아다니는 스파게티 괴물을 숭배하는 집단이다.

이날 파스타파리안들은 앞으로 야외에서 종교 집회를 열 수 있게 해달라고 시 당국에 요청했다. 그러나 시 당국은 스파게티 괴물교와 같은 집단의 공개 집회는 법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다며 집회 신청을 거부했다.

그러자 파스타파리안들은 시 당국에 대한 반발과 항의의 표시로 거리 행진을 벌이고 면에 대한 숭배 의식 등을 진행하면서 '면발 사랑'을 과시했다.

그런데 거리 곳곳에서 스파게티 괴물교 신도들의 기도와 찬양 소리가 울려퍼지면서 문제가 생겼다. 평소 이들을 못마땅하게 여겨 온 러시아 정교 신도들이 발끈하고 나섰기 때문.

러시아 정교 신자인 드미트리 엔테오는 신도들과 함께 "당장 기독교를 패러디한 스파게티 괴물교의 집회를 중단하라"며 파스타파리안들의 거리 행진을 막아섰다. 이어 "날아다니는 스파게티 괴물교가 신성한 교회를 모독했다"며 "이런 집회는 당장 해산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엔테오 측은 파스타파리안에게 "마카로니와 스파게티를 좋아한다고? 여기 당신들을 위한 소스도 있소!"라며 케첩을 뿌려 논란을 빚었다.

결국 두 종교 신도들의 과격하게 몸싸움을 벌여 경찰까지 출동, 여덟 명은 현장에서 체포됐다.

스파게티 괴물교 신도인 유리는 "스파게티 괴물교는 지난 2005년 미국에서 만들어진 종교 집단"이라며 "괴물교 신자들은 교회를 비난하거나 모욕할 생각이 전혀 없고 다른 종교에 대해 관심도 없는데 왜 우리를 비난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페테르부르크 등지에서도 스파게티 괴물교 신도들의 집회가 열렸지만 경찰에 체포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illegible] 기자, 정리=조선미기자

metro Mexico

Es má
super
desan
la mu

지인 죽음보다 연인과의 이별 슬픔강도 세다

사랑하는 연인과의 이별 가까운 지인의 죽음 둘 중 어떤 상황에서 사람들은 더 큰 슬픔을 느낄까?

최근 멕시코 국립자치대학교(UNAM) 심리학 연구팀은 17세 이상 시민 833명을 대상으로 이별과 고통에 대한 심층 인터뷰를 실시했다.

연구팀의 로시나 산체스 교수는 "죽음에 대한 심리 연구는 그간 활발히 진행된 데 비해 연인과 헤어진 이후 느끼는 감정에 대한 연구는 제대로 이뤄진 적이 없다"며 이번 연구를 진행된 의도를 밝혔다.

이를 위해 연구팀은 '이별의 고통에 관한 안제 평가 시스템(ETDRA)'을 개발했다. 지인의 죽음 이후 겪는 감정의 흐름이 6단계를 거친다는 점에 착안, 이별의 고통 또한 시스템을 통해 평가할 수 있다고 본 것.

ETDRA에 따르면 연인을 잃은 사람들이 가장 처음 맞보는 감정은 '협상'단계다. 헤어진 연인의 마음을 되돌리고자 애쓰는 시기다. 하지만 이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되면 사람들은 공격적인 성향을 보이며 '적개심 표출' 단계로 접어든다. 이후 일상 생활에 대한 의욕을 모두 잃어버리는 '절망' 단계로 확진다. 시간이 흘러 우울증과 상실감이 사라지게 되고, 사람들은 마지막 '안정' 단계에서 절망의 늪을 벗어난다.

산체스 교수는 "연인과 헤어졌을 때 사람들이 죽음에 버금가는 우울함과 상실감을 느낀다"며 "이 때문에 사람들이 연인과의 이별을 지인의 죽음보다 더 힘겨워 한다"고 설명했다.

/[illegible] 기자, 정리=조선미기자

market index <26일>

코스피	코스닥
1897.88 (+17.70)	533.73 (+4.54)

금리	환율
2.54 (-0.02)	1112.50 (-1.00)

뉴스 & 뉴스

5년새 전셋값 1억원 상승

● 지난 5년 동안 서울 소재 아파트 18%는 전셋값이 1억원 이상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8월 3주차 시세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 총 10만9652가구를 대상으로 전셋값을 조사한 결과 총 가구의 약 18%인 19만2413가구가 2008년 이후 5년 동안 1억원 이상 올랐다. 이는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면서 자금 여력이 충분한 수요자들도 주택 매매보다는 전세 선호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김민석기자

신도리코 과징금 6100만원

● 정당한 사유없이 일률적으로 하도급 단가를 삭감했던 신도리코가 과징금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신도리코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6100만원을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부당하게 인하한 하도급대금 8400만원을 14개 수급사업자에게 되돌려주라고 지급명령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신도리코는 2010년 9월 14개 협력업체에 복사기 부품제조를 위탁하면서 원가절감을 이유로 240개 부품 단가를 사업자별·부품별 5~18%씩 일률적으로 인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국현기자

농협, 체크카드 시장 1위

● NH농협카드가 체크카드 시장 1위 자리를 탈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업계에 따르면 농협카드의 국내 체크카드 시장점유율은 올 상반기 기준 22.6%로 1위를 기록했다. 이어 KB국민카드 21.4%, 신한카드 17.5%, 우리카드 12.8%, 하나SK카드 4.8%, 외환카드 3.2% 순이었다. 지난해 말까지는 국민카드(22.7%)가 농협카드(20.3%)를 2.4%포인트 차로 앞서 있었지만 올 1분기 농협카드가 점유율을 22.5%로 확대하면서 국민카드를 제친 뒤 2분기까지 1위 자리를 지켰다. /김희주기자

metro |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송월로 2가 1 141-142
TEL 02)721-9800 FAX 02)730-1551

발행·인쇄인	남궁호
사장·편집인	김 희 학
편 집 국 장	조 민 호
광고국장·직대	김 한 열
서울광고문의	02)721-9851~3
부산광고문의	051)550-2100
독 자 센 터	02)721-9815

2002년 5월 31일 창간 / 등록번호 서울특별시 가00298

10대 그룹 상반기 투자 8% 줄어

국내 10대 그룹의 상반기 투자가 지난해보다 8% 가량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투자를 늘린 곳은 현대자동차, 포스코, 현대중공업 등 3개 기업 뿐이었다.

26일 기업경영 평가업체인 CEO스코어에 따르면 올 상반기 10대 그룹의 투자실적은 36조7천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 39조2680억원에 비해 8.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룹별로는 회장 공석사태가 1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 한화의 투자 감소율(36.1%)이 가장 컸다. 금액 면에서는 삼성의 투자 감소율이 가장 높았다. 삼성그룹은 지난해 상반기 16조6000억원에서 올 상반기에는 12조원을 투자, 27.8%의 투자 하락률을 기록했다. 금액으로는 4조6000여억원으로, 10대 그룹 전체 감소분 3조2179억원을 상회했다. 이밖에 GS(-15.5%), 롯데(-11.1%), 한진(-11.0%), LG(-4.9%), SK(-4.1%)도 일제히 투자를 줄였다. /유현욱기자

더 빵빵해진 에코마일리지 카드

쓰면 쓸수록 환경보호에 생활비 절감…병원 진료비 결제도 OK

요즘 환경도 보호하고 덤으로 생활비 절감까지 챙겨주는 '에코마일리지 카드'가 인기다.

에코마일리지제란 일정기간 전기·수도·도시가스 등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면 감축량에 따라 혜택을 제공받는 제도로 녹색생활 에너지 절약 프로그램이다.

차곡차곡 쌓인 마일리지로 교통카드 충전권, 신용카드 마일리지, 공동주택 관리비 차감 등에 사용할 수 있어 꽤 쏠쏠하다.

더욱이 이번 달부터는 에코마일리지 사용 범위가 병원 진료비 결제까지 확대됐다. 마일리지를 병원 진료비로 사용하려면 에코마일리지 홈페이지에 접속해 마일리지를 '병원가자 포인트'로 전환해야 한다. 포인트를 통한 병원 진료비 결제는 의료복지몰인 '병원가자'와 제휴한 치과, 내과, 안과, 피부과, 성형외과 등 전국 2000여개 병원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제휴 병원은 병원가자 누리집(www.hgaja.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에코마일리지 회원은 제휴 병원에서 의료비 할인, 우선 예약, 의료 견적, 보험금 인터넷 청구 등의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

자동차 주행거리만 줄여도 에코마일리지를 받을 수 있다. MG손해보험사의 마일리지 자동차보험에 가입해 연간 자동차 주행거리를 감축하면 3만원 상당의 3만 마일리지가 지급된다. 감축한 주행거리가 3만 마일리지를 초과하게 되면 MG손해보험사가 1km에 10마일리지씩 1인 최대 7만 마일리지(7만원)까지 적립해 저소득층의 에너지 효율화 사업에 기부한다.

에코마일리지 카드는 에코마일리지 회원가입 후(ecomileage.seoul.go.kr) 가까운 은행을 방문하거나 에코마일리지 카드 전용홈페이지를 통해 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송진기기자 mesu@metroseoul.co.kr

'세드나 골드'로 지작된 최초 시계 26일 서울 삼성동 무역센터점에서 그랜드오픈을 맞아 스위스 시계 브랜드 오메가의 '컨스텔레이션 세드나'를 단독으로 선보이고 있다. 이 제품은 골드, 구리, 팔라듐 세가지 요소를 믹스해 새롭게 창조해낸 합금인 '세드나 골드'를 사용해 제작된 최초의 시계로 독특한 골드로즈의 빛깔을 내는 게 특징이다. /뉴시스

한국 외환실탄 인도·인니보다 적다

IMF 권고치 130% 증액 논란

우리나라 외환보유액 수준이 최근 금융위기 조짐을 보이는 인도와 인도네시아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은 지난 7월말 기준 3297억 달러로 IMF가 제시한 기준치의 130% 수준이다. IMF는 통상 단기외채와 외국인증권 기타투자잔액 등을 감안해 국가별 적정 외환보유액 기준치를 제시하고 100~150%를 적정 보유액으로 권고하고 있다.

문제는 최근에 불거진 동남아 금융위기 조짐처럼 이 조건을 충족하고 있으나 위기 국면을 맞이 취할 거리는 국가들이 출현하면서 이 권고가 과연 적정한가라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경제 전문가들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외국인 투자 자금이 워낙 늘어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며 "동남아 사태 추이를 봐가면서 정부의 발빠른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기재부는 "단기외채 비율이 높지않은데다 이자 부담만 한 해 수조원에 달하는만큼 외환보유액의 무조건 제고는 운용 측면에서 어려움이 많다"고 강조하고 있다. /김민지기자 kmj@

<크루아상+도넛>

퓨전빵 '크로넛'의 달콤한 유혹

조선미기자의 글로벌 이코노미

바삭하고 부드러운 맛 뉴욕 첫선…폭발적 인기 두시간 줄서기 진풍경

최근 미국 뉴욕에서 시민들이 이른 아침부터 두 시간 씩 한 베이커리 앞에 줄을 서서 기다리는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다. 바삭바삭한 크루아상과 부드러운 도넛의 장점을 합친 퓨전빵 '크로넛(Cronut)'의 달콤한 유혹 때문이다.

프랑스 제빵사 도미니끄 앙셀이 개발한 크로넛은 뉴욕 맨해튼 소호 거리에서 첫 선을 보인 뒤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다. 특히 도미니끄 앙셀베이커리에서 매일 크로넛을 300개만 굽기 때문에 줄서기 경쟁이 거의 상상을 초월한다. 오전 7시 이전에 가게 앞에 줄을 서야 겨우 크로넛을 살 수 있을 정도다.

베이커리 관계자는 "매일 아침 손님들이 벌떼같이 몰려온다. 크로넛을 사러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에게 미안한 마음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1인당 6개씩 크로넛을 구입할 있도록 제한했는데 이마저도 최근엔 2개로 줄였다"며 "더 많은 사람들이 크로넛을 맛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앙셀은 기존의 빵과는 다른 새로운 맛의 빵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으로 두 가지 종류의 빵을 합쳐 크로넛을 만들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크로넛이 이렇게까지 인기를 끌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22일(현지시간) 크리스천사이언스모니터(CSM) 등 외신에 따르면 할리우드 스타들도 크로넛에 열광하고 있다. 슈퍼모델 하이디 클룸은 "크로넛을 사 먹는 데 2주나 걸렸다"며 "정말 환상적인 맛"이라고 크로넛을 맛본 소감을 트위터에 올렸다.

가수 겸 배우 엠마 로버츠는 크로넛을 사기 위해 새치기를 하려다가 베이커리 경비원에게 들켜 가게 앞에서 발길을 돌린 것으로 전해졌다.

크로넛은 출시한지 3달 반 만에 미국에서 가장 인기있는 먹을거리로 떠올랐다. 관광객과 유학생을 중심으로 유럽과 일본, 한국에도 입소문이 나면서 비슷한 컨셉트의 '하이브리드 도넛'이 등장, 크로넛 열풍을 예고하고 있다. /seonmi@

라이나생명 고령자 전용 암보험

라이나생명에 최근 고령자 전용 암보험 상품을 출시했다.

이 상품은 고령자들 가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이들에게 일반적으로 많이 나타나는 질병에 대해 심사하지 않고 가입할 수 있는 간편심사상품으로 고안됐다.

무배당 실버암보험(갱신형)은 특약 가입을 통해 특정암(위암, 대장암, 폐암) 또는 고액암(백혈병, 뇌암, 골수암)에 대해서 추가 보장받을 수 있어 든든하게 대비할 수 있다. 또 이번에 새롭게 출시하면서 암으로 인한 사망을 보장할 수 있도록 특약을 함께 개발했다.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암은 암보장개시일, 갑상선암은 갑상선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했을 경우 최대 2000만원을 보장받을 수 있다.

단 이 특약의 가입은 61세부터 75세까지 가능하다. 이 상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라이나생명 홈페이지(www.lina.co.kr) 또는 고객서비스센터(080-951-8585)에 확인하면 된다. /이국명기자

이건희 세계 100대 부호서 밀려…1위는 빌 게이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세계 억만장자 순위에서 100위권 밖으로 밀려났다.

블룸버그는 이건희 회장의 자산규모가 약 102억 달러(약 11조3577억원)로 블룸버그 억만장자 지수에서 107위에 머물렀다고 26일 밝혔다.

한편 세계 최고 갑부는 미국의 빌 게이츠(724억 달러)이 차지했다. 멕시코 통신재벌 카를로스 슬림은 100억달러나 줄어든 656억 달러의 자산으로 2위에 머무르고 있다. 3위는 올해 들어 106억 달러나 자산을 불린 워런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584억 달러)이다.

/서국민기자 kmseo@metroseoul.co.kr

카드 혜택을 숫자로 표현한 삼성카드의 숫자카드와 오일감에 얹은 배기량 숫자를 딴 인피니티 G25

'마법의 숫자' 기업 수싸움

자동차업계 숫자마케팅 대표적…기아차 K시리즈 흥수
삼성카드 혜택 알기쉽게 1~7로 표시…소비자 호응 받아

기업들이 숫자로 소비자 마음을 얻고 있다.

숫자 마케팅이 가장 대표적인 업계는 자동차다.

르노삼성의 SM 시리즈 SM3, SM5, SM7에서 'SM'은 르노삼성을, 3은 소형, 5는 중형, 7은 대형차를 의미한다.

기아자동차의 K시리즈도 모델명에 숫자를 도입한 사례다. 기아의 'K'와 차종 숫자를 합친 K시리즈는 큰 인기 속에 K3부터 K5, K7, K9까지 나온 상태다.

인피니티 G25의 25는 2500cc 엔진 숫자를 따왔다. 인피니티 관계자는 "인피니티 G25의 슬로건 '영감을 주는 주행성능'과 높은 엔진 효율성을 강조하기 위해 이같은 작명을 했다"고 설명했다.

카드 업계도 숫자 마케팅의 효과를 보고 있다.

삼성카드의 숫자 카드는 지난 4월 기준 출시 1년 6개월만에 발급 수 200만장을 돌파했다. 이 카드는 카드 혜택을 숫자로 알기 쉽게 압축해 큰 호응을 받았다.

현대카드가 지난달 1일 새롭게 선보인 카드 '챕터2'는 출시 50일 만에 발급매수 30만장을 기록했다. 이 카드는 기존 카드 체계를 챕터1로 비유하는 작명법을 썼다.

이밖에 마이크로소프트(MS)는 윈도 시리즈 이름을 윈도95, 윈도98, 윈도8 등으로 지으며 숫자를 통해 역사성과 상품성을 극대화하고 있다.

/장윤희기자 unique@metroseoul.co.kr

'물 새는' 싼타페 리콜여부 10월 결정

누수 현상을 보이는 싼타페의 리콜 여부가 10월 중 결정된다.

국토교통부는 트렁크에서 물이 새는 현대자동차 싼타페에 대한 리콜 여부를 10월 중순께 결정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과는 국토부 산하 자동차제작결함신고센터에 싼타페의 누수 현상이 신고되자 지난달부터 예비조사에 착수했다.

국토부는 시민단체, 학계, 공무원 등 20명으로 구성된 자동차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와 조사를 벌였다.

이번 예비조사에서 싼타페 제작결함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되자 국토부는 본조사로 전환 결정을 내렸다.

앞서 현대차는 차량 트렁크나 뒷좌석에서 비가 새는 누수 결함이 확인된 신형 싼타페에 대해 전체 무상수리를 벌이고 있다.

이에 대해 현대차가 리콜이 아닌 무상수리로 대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정은최기자

'가장 일하기 좋은 기업' 삼성전자·SK텔레콤

삼성전자와 SK텔레콤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일하기 좋은 기업에 뽑혔다.

26일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에 따르면 기업 종사자 5030명과 전문가 300명을 대상으로 '2013 한국에서 가장 일하기 좋은 기업(KGWP)' 조사를 실시한 결과, 제조업 분야에서 삼성전자, 서비스업 분야에서 SK텔레콤이 최고점을 받았다.

삼성전자는 제조업 분야에서 5년 연속, SK텔레콤은 서비스업 분야에서 6년 연속 1위 자리를 지켰다.

제조업 분야에서는 유한킴벌리, 포스코, 유한양행, SK이노베이션, LG화학, 현대자동차, LG전자, 현대중공업, GS칼텍스 등이 삼성전자 뒤를 이었다.

서비스업 분야에서는 SK텔레콤에 이어 신한은행, 삼성에버랜드, 대한항공, 삼성생명보험, KT, 안철수연구소, 아시아나항공, 국민은행, 신한카드 등이 상위 10위권을 형성했다.

/이국명기자 km.lee@metroseoul.co.kr

사원서 사장까지 30년

100대 기업 비오너경영인 조사

공채출신 75% — 이수빈 회장 13년만에 초고속 승진

국내 대기업 신입사원으로 입사해 최고경영자(CEO)가 되기까지는 무려 30년이나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이수빈 삼성생명 회장이 단 13년 만에 초고속 승진한 것으로 드러나 눈길을 끈다.

재벌닷컴은 지난 6월 말 현재 국내 100대 기업에 재직 중인 사장급 이상 비오너 경영인 163명을 조사한 결과, 공채 출신이 전체의 74.8%인 122명, 비공채 출신이 25.2%인 41명으로 나타났다고 26일 밝혔다.

공채 출신 경영인은 평균 25.1세에 신입사원으로 입사해 45세에 임원(이사대우 혹은 상무보)이 된 후 55.5세에 사장자리에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신입사원에서 사장까지 평균 30.4년이나 걸린 셈이다.

조사 대상 경영인 중 이수빈 삼성생명 회장이 최단기 초고속 승진 기록을 세웠다.

이 회장은 1965년 26세에 삼성그룹에 입사한 뒤 10년 만에 임원이 됐고, 다시 3년 만인 1973년 제일모직 사장에 발탁돼 입사 13년 만인 39세에 사장 자리에 올랐다.

김경배 현대글로비스 사장은 1990년 현대정공에 입사한 뒤 19년 만인 2009년 현대글로비스 부사장(대표이사)에 발탁됐고 2012년 사장이 됐다.

전체 163명 가운데 출신 고등학교는 경기고가 17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고 13명, 경복고 11명, 중앙고 9명, 경북고 7명 등이었다. 출신 대학은 서울대 69명, 연세대 22명, 고려대 21명, 한양대 10명, 한국외대 8명 순이었다.

/이국명기자

한라산 정상에서 즐기는 LTE-A SK텔레콤은 26일 제주도 한라산 정상 백록담에서 LTE-A 서비스를 시연, 등산객이 LTE-A의 2배 빠른 속도를 체험하고 있다. /SKT 제공

여름보다 센 가을 자외선

차단기능 있는 콘택트렌즈 선글라스와 함께 착용해야

막바지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거리에서 선글라스를 착용한 사람들이 눈에 많이 띈다. 선글라스는 패션 소품 이전에 일차적으로 햇볕의 자외선을 차단해 눈을 보호하는 기능을 한다.

피부와 마찬가지로 눈도 자외선에 장시간 노출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파장이 긴 UVA는 망막세포층에 영향을 줘 시력저하를 초래하고 파장이 짧고 에너지가 강한 UVB는 광각결막염, 익상편, 백내장 등의 안질환을 야기할 수 있다. 게다가 눈에 영향을 주는 자외선은 체내에 축적되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눈을 보호해야 한다.

선글라스를 선택할 때 렌즈의 자외선 차단 기능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렌즈의 색이 지나치게 어두우면 오히려 동공을 확장시켜 더 많은 자외선을 흡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또 얼굴에 밀착되는 스포츠형 선글라스일수록 차단력이 높다.

콘택트렌즈의 경우에도 자외선 차단 기능이 있는 렌즈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렌즈가 각막을 덮기에 선글라스 틈새로 들어오는 자외선을 추가적으로 막아주는 효과가 있다. 따라서 자외선 차단 렌즈와 선글라스를 함께 쓰면 눈에 닿는 자외선 양을 감소시켜 눈을 더욱 보호할 수 있다.

게다가 일년 내내 자외선을 차단해야 한다. 계절이 바뀌면 선글라스 착용자가 눈에 띄게 줄어든다. 해가 짧아져 자외선의 영향도 줄어들 것이라고 짐작하는 것이다. 그러나 가을이 되면 태양고도가 낮아져 자외선의 양은 오히려 늘어난다. 겨울에도 스키장 설원이나 눈에 반사된 햇빛은 눈 건강에 좋지 않다.

따라서 계절에 상관 없이 자외선을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모자나 자외선 차단 기능 렌즈를 선글라스와 복합 착용하는 것이 눈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된다는 점을 명심하자.

/서울백병원 안과 김혜진 교수

'인디안' 매장 간판 바꾼다

세정, 통합 패션 브랜드 '웰메이드' 론칭… 글로벌 SPA와 맞대결

패션브랜드 '인디안' 매장이 다음달부터 순차적으로 라이프스타일 패션전문점 '웰메이드'로 간판을 바꿔 단다.

인디안을 운영하는 세정그룹은 26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웰메이드' 론칭을 공식 밝히며 패션유통의 세대교체를 선언했다.

세정은 다음달 1일부터 전국 110곳에 웰메이드 매장을 선보인 뒤 내년까지 400개 매장으로 확대, 매출 5000억원 규모로 키우겠다는 계획이다.

'국민의 옷집'이란 수식어를 단 웰메이드는 기존 로드숍에 편집숍 개념을 더한 매장. 세정의 주력브랜드인 인디안(남성캐주얼), 앤섬(여성캐주얼), 피버그린(아웃도어) 등을 비롯해 스포츠브랜드 쎄코니, 고라이트, 캐터필라, 벨기에 가방 브랜드 에드그렌 등이 입점한다. 또한 이탈리아 수트 브랜드 브루노 바피,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한 에디트 헨셩, 그리고 웰메이드 PB브랜드인 웰메이드 프로덕트도 선을 보인다.

이 중 웰메이드 프로덕트는 세정이 유니클로나 자라 등 SPA 브랜드에 대응하기 위해 내놓은 라인으로 경쟁사와 비슷하거나 약간 높은 가격에 좀 더 높은 연령대를 겨냥할 방침이다.

박순호(가운데) 세정그룹 회장이 인디안 모델인 정우(왼쪽), 앤섬 모델인 서우리와 포즈를 취하고 있다.

세정그룹 박순호 회장에겐 웰메이드가 두 번째 승부수일 만큼 큰 의미를 지닌 사업이다. 박 회장은 "올 상반기에만 철수한 패션기업이 20여 개에 달하는 등 국내 패션 시장이 어려움에 처해있는 데 전통시장 납품에서 대리점 체제로 전환한 1988년 이후 25년 만에 다시 한번 유통혁신에 도전한다"며 "IMF와 글로벌 경제위기 등 위기 때마다 승부수를 던져 성공한 세정의 저력을 보여주겠다"고 강조했다.

/유효송기자 hoone@metroseoul.co.kr

뉴스 & 뉴스

신세계 '시간 선택제 일자리' 연내 1000개 신설

● 신세계그룹이 올해 '시간 선택제 일자리'를 최대 1000여개 신설하겠다고 26일 밝혔다. 시간 선택제 일자리는 근무 시간을 풀타임 또는 파트타임으로 자유롭게 선택해 일하는 방식으로 임금이나 복리후생이 정규직과 차이가 없고 정년까지 근무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스타벅스 매장 점장 및 부점장 출신을 대상으로 '리턴맘 재고용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이마트 계산원을 대상으로 정년 퇴직 이후 재취업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농심, 다음달 2일부터 본사 어린이집 운영 시작

● 농심이 다음달 2일부터 서울 신대방동 본사에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임신한 직원이 출퇴근 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탄력근무제를 도입하는 등 '모성보호 경영'을 강화한다고 26일 밝혔다.

농심 관계자는 "출산과 육아는 사회 공동의 책임이란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여성들의 경력단절은 개인, 기업, 사회적으로 모두 손해인 만큼 모성보호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JAL, 국제·국내선 노선 변경

JAL그룹이 2013년도 국제선과 국내선 노선 및 편수 계획의 일부를 변경한다고 26일 밝혔다.

일본 내 국내선은 수급 환경 변화에 최적화된 노선과 편수로 조정해 고객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 네트워크를 확충할 방침이다.

또 보잉 787-8기종을 나리타~시드니 노선, 나리타~방콕 노선 등에 투입한다. 보잉777-300ER 기종의 '스카이 스위트777'을 오는 11월부터 나리타~로스앤젤레스 노선에, 2014년 1월부터는 나리타~시카고 노선으로 확대한다.

스페라 에너지 반지 등 출시

건강제품기업 레노바티오가 스페라 에너지를 이용한 반지, 목걸이, 팔찌 등을 선보였다.

제품은 은석을 비롯해 구조토, 춘전옥 등 15가지 물질을 혼합해 가공한 에너지를 통해 스페라 에너지의 효과를 담았다고 회사 측은 말했다.

대체의학으로 각광받는 파동원리를 이용해 인체의 자연 치유력과 면역력을 높여 성인병 예방에 도움을 주고 혈액 조절, 근력 강화, 통증 경감 등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회사 측은 말했다. 문의 032)832-5410

/황재용기자

강강술래 추석선물 예약하면 선물 '펑펑'

9월 1일까지 주문 접수

외식문화기업 강강술래가 추석을 앞두고 명절 선물세트를 최대 39% 할인 판매하며 대량구매 시 추가할인 혜택을 준다. 9월 1일까지 온라인 쇼핑몰(www.sullaimall.com)과 전화 주문(080-925-9292)을 통해 구매할 경우 화장품이나 지갑, 도서 등의 선물을 증정한다.

100% 한우사골곰탕 대용량 세트(600㎖ 5팩, 15인분)는 3만9100원, 소용량 세트(350㎖ 5팩, 10인분)는 2만2900원에 판매한다. 방부제를 뺀 갈비맛 쇠고기육포 선물세트(6봉)는 2만5900원에 선보인다.

강강술래 곰탕은 HACCP인증 시설에서 한우로만 우려냈으며 방부제와 색소, 조미료 등을 넣지 않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다. 레토르트 포장을 통해 실온에서도 9개월까지 보관 가능하다.

100% 한우 갈빗살만을 사용한 '질질한우 떡갈비세트(3박스)'는 4만7500원, 국내산 돼지고기가 70% 함유된 '흑염자반돈너비아니세트(3박스)'는 3만700원에 판매한다.

매장 인기메뉴인 한우불고기1호(1.8kg)는 6만원, 한우불고기2호(3.6kg) 11만원, 술래양념1호(소갈비 16대) 8만원, 술래양념2호(소갈비 32대) 15만원, 술래실속(소갈비 16대+한우불고기 1.8kg)은 13만원에 구매할 수 있다.

1+등급 이상의 한우만을 사용한 한우정성1호(국거리+불고기+장조림 2.4kg)는 14만원, 한우정성2호(등심+채끝+국거리 2.4kg)는 19만원에 판매하며 한우찜갈비세트(2.4kg, 18만원)와 한우명품세트1호(안심+등심+채끝 2.4kg, 27만원)도 파격가로 선보인다.

산들건강식품 최대 40% 할인

산들건강식품이 추석을 앞두고 다양한 선물용 제품을 판매한다.

배, 도라지, 은행, 대추, 생강, 홍도라지, 산삼 배양근 등을 넣어 배에서 나오는 배즙으로 4일 이상 달여 만든 '산들통배고'는 1kg 상품 등을 최대 40% 할인 판매중이다. 구입 시 블랙초크베리(아로니아) 500g 생과를 증정한다.

또한 김치유산균을 마이크로캡슐(3단계 코팅)화한 '김치生유산균' 10박스 구매 시에도 블랙초크베리 500g 생과를 덤으로 준다. 산들건강식품에서 판매 중인 블랙초크베리 생과는 블루베리에 비해 안토시아닌의 함유량이 3.9배나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엄홍길휴먼재단 관절염 무료치료 후원

무릎 퇴행성관절염 환자들을 위해 제대혈 유래 중간엽 줄기세포 치료 후원

국내외에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있는 엄홍길휴먼재단이 최근 연세사랑병원(병원장 고용곤)과 '제대혈 유래 중간엽 줄기세포 치료(카티스템)' 후원 협약을 체결, 저소득층 무릎 퇴행성관절염 환자들을 위해 본격적인 후원 활동에 나섰다.

무릎 퇴행성관절염은 무릎 관절 내 자리 잡고 있는 연골이 손상돼 뼈와 뼈가 서로 맞닿아 통증을 일으키는 질환이다. 연세사랑병원 고용곤 병원장은 "사실 연골에는 신경세포가 없어 손상돼도 통증을 느끼지 못하지만 연골이 없어져버림으로써 무릎이 맞닿게 될 때 그 마찰로 인해 통증을 느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골 손상의 경우 주로 노화에 따른 퇴행성 변화 때문에 발생하지만 넘어져서 생기는 외상, 스포츠 손상과 같은 원인에 의해서도 나타나고 있다. 특히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무릎 관절 환자는 최근 4년간 2.13배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게다가 연골은 스스로 재생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손상됐을 경우 자연 치유가 불가능하다.

의료계는 그동안 이런 무릎 퇴행성관절염 치료 연구 결과 최근엔 인공관절 수술, 줄기세포 치료가 가능하게 됐다.

인공관절 수술은 본래 자신의 관절을 인공관절로 바꿔주는 치료법으로 무릎 관절 운동량 회복 뿐 아니라 통증 경감에도 도움을 준다. 또 줄기세포 치료는 무릎 퇴행성관절염 초·중기에 시행할 수 있는 최신 치료법이다. 줄기세포를 연골 병변에 주입해 연골로 분화하게끔 만듦으로써 연골을 재생시키는 원리다. 줄기세포는 성인의 골수, 제대혈(탯줄 혈액), 지방 등에서 채취가 가능하다.

고용곤 연세사랑병원장(왼쪽)과 산악인 엄홍길 대장.

하지만 일부 환자들은 치료를 받고 싶어도 경제적인 사정으로 선뜻 나서지 못한다. 이에 엄홍길휴먼재단이 연세사랑병원과 협약을 체결하고 이들을 지원키로 했다.

지난 2008년 국내외 청소년 교육과 소외계층 지원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엄홍길휴먼재단은 현재 국내외에서 다양한 휴먼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이번 협약 역시 휴먼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후원 대상자는 무릎 퇴행성관절염을 앓고 있는 저소득층 환자들이다. 엄홍길휴먼재단은 이번 후원을 주관하며 무릎 퇴행성관절염 치료 대상자 접수를 받는다. 또 파트너인 연세사랑병원 측은 이에 따른 의료서비스를 후원하게 된다.

연세사랑병원은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관절 전문병원으로 지난해 엄홍길 대장을 홍보대사로 임명하며 환자들의 관절 건강을 위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세포치료연구소를 설립해 운영하고 있으며 여기서 얻은 성과를 국제 학술지 더 니(The Knee)와 아스로스코피(Arthroscopy)에 게재하기도 했다. 또 연세사랑병원은 매년 꾸준하게 지역 의료봉사를 펼치며 어르신들의 무릎 관절 건강을 살피고 있다. 10년째 전남 진도군에 나가 의료봉사를 펼치고 있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엄홍길휴먼재단 엄홍길 상임이사는 "일부 저소득층 어르신들이 무릎 통증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모습을 볼 때마다 안타까웠다. 이번 협약으로 저소득층 어르신들이 다시 건강한 발걸음을 옮길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황재용기자

◆치료 후원 신청 방법

이번 행사는 인터넷과 전화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본인 이외의 대리인 신청도 가능하다.

- 전화: 02)2272-8849(엄홍길휴먼재단 후원 캠페인 담당자)

- 인터넷: 엄홍길휴먼재단 홈페이지(www.uhf.or.kr) 접속 후 후원 캠페인 팝업창을 통해 신청

여의도성모 토요진료 확대

가톨릭대의대 여의도성모병원이 다음 달부터 토요 진료를 교수급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여의도성모병원은 이번 확대 운영은 평일 토요일에 병원을 이용하는 환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평일과 동일한 수준의 검사나 수술이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윤경일 병원장은 "앞으로도 병원 이용 시 발생하는 불편사항을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재용기자

종합병원 '경쟁력 지수' 서울대병원 4년째 1위

서울대병원이 지난 2010년부터 4년 연속으로 국가브랜드경쟁력지수(NBCI) 1위를 차지했다고 26일 밝혔다.

국가브랜드경쟁력지수는 한국생산성본부가 기업의 마케팅활동 인지도·신뢰도·충성도 등을 조사·평가해 지수화한 것이다. 매년 2회 약 60개 산업군, 200여개 개별 브랜드를 대상으로 발표하고 있다.

올해 서비스업에 대한 조사는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약 3개월간 전국 주요 도시 거주자 4만6140명을 대상으로 1대1 개별면접을 통해 이뤄졌다.

서울대학교병원은 100점 만점 중 76점으로 종합병원 부문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서울아산병원과 신촌세브란스병원이 각각 2위와 3위를 차지했다.

오병희 서울대 병원장은 "앞으로 질병관리와 예방 프로그램을 융합한 새로운 의료 패러다임을 도입해 지속 발전이 가능한 국가의료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황재용기자 hsoul38@metroseoul.co.kr

우리에게 내일은 없다
Musical
BONNIE & CLYDE
보니 앤 클라이드
9월 3일 오후 2시 2차 티켓 오픈!
2013.9.4~10.27 충무아트홀 대극장
이정열 김법래 김민종 엄기준 한지상 Key 박형식 주아 안유진 리사 다나 김형균 박진우 김민수 외
bonnieandclyde.interest.me

안랩 문자 클릭했더니 정보 '줄줄'

'V3 모바일' 설치안내 위장 스미싱 주의보

대표적인 스마트폰 보안 앱인 'V3 모바일' 설치 안내로 위장한 스미싱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안기업 안랩은 이같은 사례가 발견됐다며 사용자의 주의를 26일 당부했다.

이번에 발견된 안랩 사칭 문자메시지(사진)는 'Ahnlab(안랩)에서 알려드립니다'라는 문장으로 시작해 안랩의 공식 알림인 것처럼 보이는 것이 특징이다.

하지만 메시지에 있는 인터넷 주소를 터치하면 아이콘의 모양은 V3와 유사하지만 이름은 '내가사께'로 표기된 가짜 앱이 설치된다. 이 앱을 실행하면 악성코드를 검사하는 듯한 화면이 나타난다. 그러나 실상은 사용자 몰래 주소록과 통화기록, 문자메시지를 공격자에게 전송한다.

안랩 관계자는 "예전에 '내가사께'라는 악성 앱을 만든 제작사가 V3를 사칭한 악성 앱을 제작하면서 미처 이름을 변경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삼성전자와 LG전자 스마트폰에 'V3모바일'을 기본색으로 탑재하고 있으며 문자메시지를 통해 개별 설치안내를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국명기자 kmlee@

고향가는 길 앱 있잖아

'코레일톡' 승차권 예매 비중 늘어… 공연 앱 등도 눈길

추석이 성큼 다가오면서 모바일 예매 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접속자가 많이 몰리는 인터넷이나 전화 예매는 불통이 되기 십상이므로 모바일 예매 앱을 잘 이용하면 명절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다.

코레일은 승차권 예매 앱 '코레일톡'을 서비스 중이다. 현재 코레일톡은 전체 승차권 예매의 35%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

코레일톡을 이용하면 KTX를 비롯한 코레일에서 운영 중인 모든 열차의 시간 조회, 승차권 예약, 결제, 발권, 취소, 반환을 할 수 있다. 일반승차권은 물론 정기승차권, 내일로티켓, 할인승차권, 관광열차승차권까지 구입이 가능하다.

별도의 종이 승차권 없이 모바일 티켓으로 승차 확인이 가능한 것도 장점이다. 다만 단체승차권, 입장권, 입석승차권, 자유석승차권 등은 구입할 수 없다.

더 가볍고 더 얇아진 '넥서스7' 구글코리아 관계자들이 2013년형 '넥서스7'을 26일 선보이고 있다. 신제품은 기존 모델보다 무게와 두께를 대폭 줄였다. /연합뉴스

코레일톡은 윈도 스토어를 비롯한 애플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스토어 등 모든 운영체제에서 이용이 가능하다.

고향으로 내려갔다면 각종 스포츠 경기와 문화 공연 관람으로 즐거운 연휴를 보내는 일만 남았다.

티켓링크와 인터파크, G마켓 등은 온라인 티켓 예매 노하우를 그대로 적용한 동명의 모바일 앱을 운영하고 있다.

이들 앱은 공연, 스포츠, 전시 등의 다양한 공연정보와 티켓 예매 서비스를 제공한다. 마감이 임박한 티켓, 환불 티켓 등을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할 수도 있다.

/장윤희기자 unique@metroseoul.co.kr

metro entertainment

드라마 '너목들'로 스타덤

이 다 희

이달초 인기리에 막 내린 SBS TV '너의 목소리가 들려(이하 너목들)'에서 서도연 검사를 열연해 데뷔 11년 만에 스타덤에 오른 이다희(28)가 여세를 몰아 공백없이 안방극장을 다시 찾는다. 다음달 초 방송될 KBS2 TV 새 수목극 '비밀'에서 사랑 연기를 펼친다. "착착한 분위기의 전작과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서 망설임없이 합류를 결정했다"고 그는 자신있게 말했다.

"차도녀 아니에요…실제론 털털"

#촬영하며 보영언니와 친해져

연인을 살해한 여자의 사랑에 빠지는 독한 사랑 이야기인 '비밀'에서 엘리트녀 신세연 역을 맡았다. 지성·배수빈·황정음과 사각 관계를 이루며 사랑에 대한 욕망과 고독을 그려낼 예정이다.

"비록 쉴 시간은 없었지만 '너목들'로 많은 사랑을 받아서 빨리 시청자들을 다시 찾아뵙고 싶었어요. 차갑고 프로페셔널하다는 점에서 서도연과 비슷한 캐릭터지만 전작과 달리 이번엔 러브라인 등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 기대가 된답니다."

전작에서 장혜성 변호사 역의 이보영과 대립 구도를 이루며 제미를 선사했던 이다희는 차기작에서 이보영의 연인 지성과 호흡을 맞춰 눈길을 끈다.

"낯을 가리는 성격인데 언니가 먼저 말을 걸어줘서 자연스럽게 친해졌어요. 차기작 첫 촬영을 하는 날에도 안부 문자를 보냈더니 '더운데 고생한다'고 격려를 해줘서 기뻤어요. 이번에 언니의 약혼자인 지성씨와 연기하나 더 친해질 것 같아요. 촬영이 바쁘지만 않다면 다음달 열릴 두 분 결혼식에 가고 싶어요."

#군더더기 없는 내면연기

지난 몇 개월간 입고 있던 법복을 벗으니 "신데렐라가 유리구두를 벗어 마법에서 풀린 기분"이라고 말했다.

"처음에는 법정신이 익숙하지 않아서 긴장되고 힘들었던 기억이 나요. 그러나 연기하면서 자꾸 몸에 익어서 나중엔 법복만 입어도 내가 진짜 검사가 된 기분이었죠. 밥 먹으러 촬영장 밖에 나갈 때도 입은 채로 가고 싶을 정도였어요."

서도연 검사 열연 인기얻어 법복 벗으니 마법 풀린 기분

새 수목극 '비밀'선 엘리트녀 늘 변하지 않는 배우 되겠다

실제 성격은 서도연과 달리 활발해서 농담도 잘하고 장난도 잘 치지만 카메라 불만 들어오면 냉철한 검사로 변신했다. 특히 26년 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황달중(김병옥)이 아버지라는 출생의 비밀을 안고 있는 내면이 복잡한 검사 역을 군더더기 없이 소화해 시청자들로부터 아낌없는 칭찬을 받았다.

"작가님이 배역을 설명하면서 '연기를 잘 잡고 가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하시기에 '믿어달라'고 말했지만 설은 출생의 비밀 요소 때문에 연기를 잘 하지 못하면 더욱 좋지 않게 비춰질까봐 부담이 됐어요. 다행히 신에 들어가면 자연스럽게 감정이 잡혔죠. 촬영장에서 김병옥 선생님과 진짜 부녀지간처럼 지내서 그런 것 같아요."

#174cm 연기경력 11년

2002년 슈퍼모델 선발대회로 데뷔한 모델 출신으로 이듬해부터 '천년지애' '슬픈연가' '태왕사신기' '크크섬의 비밀' '로맨 패밀리' 등 다양한 드라마에 출연한 중고 신인이다.

이전까진 무명에 가까웠다가 '너목들'을 통해 비로소 이름을 알렸다.

"'너목들' 출연 전까진 영화를 보러가면 큰 키(174cm) 덕분에 쳐다는 봐도 연기자임을 알아보는 분들이 없었는데 지금은 서도연 검사라고 불러줘요. 다만 신인으로 아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연기 경력이 11년이 됐다고 하면 다들 놀라죠."

무인도 표류기를 그린 '크크섬의…'에서 함께 호흡을 맞췄던 김광규·윤상현과 '너목들'에서 다시 만난 그는 "김광규 선배가 이 드라마를 통해 상현 오빠는 변호사가 되고, 본인은 판사가 되고, 나는 검사가 되는 등 다들 출세했다고 농담했다"면서 깔깔댔다.

"당장은 지금의 인기가 너무 좋아요. 그렇지만 변했다는 이야기만큼은 듣지 않고 싶어요. 지난 11년간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많이 겪으면서 늘 변하지 않는 배우가 되고 싶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지금 마음처럼 늘 연기 잘하는 배우가 되고 싶습니다."

/박진현기자 tak5427@metroseoul.co.kr

사진/기타리현주 제공·디자인/이미림

star bag

당뇨합병증으로 46세 사망

개그맨 **오성우**가 세상을 떠났다.

고인은 25일 경기 구리 한양대병원에서 당뇨병 합병증으로 사망했다.

향년 46세. 1987년 KBS 공채로 데뷔해 '유머 일번지' 등과 영화 '티라노의 발톱' 등에 출연했다.

빈소는 서울 여의도 성모병원 장례식장 2호실. 발인은 28일 오전 7시로 장지는 경기 고양 자유로청아공원이다.

성격차이로 수개월전 갈라서

방송인 **LJ**(본명 이주연·왼쪽)·이선정 부부가 이혼한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한 연예 프로그램의 보도에 따르면 이들은 성격 차이를 이유로 이미 수 개월전 갈라선 것으로 전해졌다.

LJ와 이선정은 올 2월 SBS '스타부부쇼 자기야'에 나와 지난해 만난지 45일만에 결혼식없이 혼인 신고만 했다고 밝혀 화제를 모았다.

'헌가증'으로 스크린 나들이

도지원이 영화 '헌가증'으로 '펀치 레이디' 이후 6년만에 스크린으로 돌아온다.

소속사는 26일 공식 트위터를 통해 "도지원이 다음달부터 본격적인 촬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얼마전 막내린 일일시트콤 '별말의 순정'에 엉뚱한 성격의 작가 겸 주부로 출연했던 그는 이번 작품에서 치매에 걸린 엄마(김영애)로 인해 상처받는 큰딸을 연기한다.

합동 소극장 콘서트 10월 개최

바이브와 린, 옴씨더맥스, 스윗소로우 등이 합동 소극장 콘서트를 마련한다.

이들의 소속사에 따르면 공연은 10월 16일 서울 서교동 롯데카드아트홀에서 열릴 예정이며, 현서 각자의 단독 무대도 11회에 걸쳐 개최된다. 30일부터 예매가 시작된다.

"근짱 보자" 일본팬 8만명 몰렸다

장근석 '직진 페스티벌'

한류스타 장근석이 일본에서 개최한 '직진 페스티벌'에서 8만여명의 관객을 불러모으는 기염을 토했다.

26일 소속사에 따르면 3~4일 양일간 오사카 언넥스에서 3만9000명을 동원한데 이어, 도쿄 마쿠하리에서 진행된 24~25일 공연에서 또 다시 4만여명을 끌어모았다.

이번 행사는 장근석이 출시한 오리지널 브랜드 '직진'을 타이틀로 내세운 신개념의 이벤트다. 장근석이 3년 전부터 직진 기획에 팀에이치(Team H)의 공연과 자신을 주제로 한 각종 부스들로 꾸며 방문객들로부터 많은 환호를 받았다.

행사에 참여한 일본의 유명 주간지 여성자신의 편집장은 "장근석의 팬 동원력과 현장의 열기는 직접 느껴봐야 안다. 장근석이 새롭게 시작한 이벤트의 형식은 후배들에게도 이어질 역사의 시작이 아닐 수 없다. 그는 이번 페스티벌을 통해 리얼한 파워를 증명한 셈"이라고 극찬했다.

/[illegible] 기자

비슷한 듯 다른 의학드라마 '굿닥터' 인기분석

병원연애 진부 '메스' 장애가진 의사 '파격' 소아외과 배경 '신선'

KBS2 월화극 '굿닥터'가 색다른 의학 드라마로 시청자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이 드라마는 대학병원 소아외과를 배경으로 자폐 성향의 서번트 증후군을 지닌 청년 박시온(주원)이 주위의 모진 시선과 장애를 극복하고 천재적인 의사로 성장하는 이야기를 다룬다. 시청률 20% 돌파를 눈앞에 두며 인기를 모으는 중이다.

기존 히트 의학 드라마 흥행 요소들의 장점은 더욱 살리되 식상한 점은 과감히 뺐다는 점이 인기 이유다.

'하얀거탑'(2007), '외과의사 봉달희'(2007), '뉴하트'(2008), '브레인'(2011)처럼 생명이 경각에 달한 환자들을 수술하는 외과를 배경으로 긴장감을 극대화시킨다는 점은 비슷하다. 그러나 외과 중에서도 아이들을 돌보는 소아외과를 처음 시도함으로써 성인들을 중심으로 치료 과정을 보여준 기존 드라마보다 시청자들의 마음을 더욱 짠하게 만들었다.

또 '봉달희'의 봉달희(이요원)처럼 기존 히트 의학 드라마는 주로 약점을 지닌 주인공을 내세워 시청자들의 공감을 자아내왔는데, '굿 닥터'는 그 약점을 극대화시켰다. 장애를 지닌 서번트증후군 캐릭터를 주인공으로 내세운 것은 가히 파격적이다. 많지 않은 연기 경력에도 깊이 있는 연기력으로 이를 자연스럽게 소화하고 있는 주원이 시청자들을 끌어들인 일등공신이다.

반면 일부를 제외하면 한국의 의학 드라마에서 늘상 빠지지 않았던 병원에서 연애하는 이야기는 과감히 없애 식상함을 줄였다. 물론 박시온과 차윤서(문채원)의 러브라인 조짐은 있지만, 지금까지는 주로 의사들의 이야기에 집중했다.

한편 10월부터는 의료 현장 드림팀의 탄생 과정과 의료계 관련 다툼을 그린 MBC '메디컬탑팀'도 방영될 예정이어서 하반기는 의학 드라마 붐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illegible] 기자 [illegible]

정만식 1세연하 배우와 결혼

배우 정만식(사진)이 한 살 연하의 연극배우와 12월 결혼한다.

26일 소속사에 따르면 정만식은 일본에서 연기 활동 중인 여자친구와 4년간 교제한 끝에 최근 결혼을 결정했다. 아직 장소와 날짜는 정하지 않았다.

올해 초 영화 '7번방의 선물' 개봉 당시 에브로신문과 인터뷰를 가진 그는 "4년 전 여자친구와 연극에 함께 출연하면서 연인으로 발전했다"면서 "여자친구가 해외에 머물고 있어 1년에 30일 정도 밖에 만나지 못해 더 애틋하다. 이번 영화를 찍으면서 결혼해 아이를 가지고 싶어졌다"고 결혼 계획을 귀띔하기도 했다.

연극배우 출신으로 올해 초 SBS TV 드라마 '야왕'과 영화 '7번방의 선물'로 전성기를 맞았다. 현재 KBS2 TV 월화극 '굿 닥터'에 출연하고 있고, 영화 '군도: 민란의 시대'와 '남자가 사랑할 때'의 개봉도 앞두고 있는 등 활발히 활동 중이다.

/[illegible] 기자

※ 원작 『명예의 조각들』(로이스 맥마스터 부졸드 지음 / 씨앗을뿌리는사람 출간)은 서점에서 절찬리 판매중입니다

이효리 걸그룹 스피카 신곡 총괄 지휘 이상순은 투개월 김예림 앨범 작·편곡

'李-李커플' 바쁘다 바빠

다음달 웨딩마치를 울리는 이효리-이상순 커플이 결혼 준비보다 더 분주한 음악활동으로 눈길을 모으고 있다.

이상순은 다음달 초 출시되는 투개월 김예림의 두 번째 미니앨범에 작곡가 겸 편곡가로 참여해 27일 공개될 발라드 장르의 수록곡 '레인'의 편곡과 기타 연주를 맡았다. 6월 발표한 김예림의 첫 번째 미니앨범에도 연주자로 참여해 완성도를 높였던 이상순은 또 한 번 든든한 지원군으로 나섰다.

김예림의 소속사 미스틱89는 26일 오전 페이스북에 김예림과 이상순의 녹음실 작업 사진을 공개했다. 어색한 표정으로 카메라 앞에 나란히 선 두 사람의 모습을 본 네티즌은 "이효리가 질투할 정도로 묘하게 어울린다"는 반응과 함께 신곡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효리는 소속사 후배 걸그룹 스피카의 신곡을 총괄 지휘했다. 28일 신곡 '투나잇'을 발표하는 스피카의 안무와 스타일링을 기획하는 것은 물론 체계적인 기본 훈련까지 도맡았다.

컴백 준비 과정은 케이블 채널 온스타일 '이효리의 X언니'를 통해 전파를 타기도 했다. 이효리는 타이거JK를 섭외해 스피카 멤버의 랩 훈련을 시키기도 했고, 엄격하면서도 자상하게 원조 섹시 퀸의 활동 노하우를 전수했다.

김예림과 스피카의 신곡은 하루 간격으로 출시돼 이상순과 이효리의 대결 구도로 이어지는 것도 흥미를 더한다.

한편 이상순은 5일 출시된 이기찬의 신곡 '부러우면 지는거야'에 이효리의 권유로 피처링에 참여하는 등 두 사람은 활발한 커플 음악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유순호기자 suno@metroseoul.co.kr

복면 쓴 힙합전사 지드래곤

새 앨범 '쿠데타' 티저 공개

COMING VERY SOON
G-DRAGON
COUP D'ETAT

파격적인 콘셉트로 트렌드를 이끌어온 빅뱅의 지드래곤이 새 앨범 발표를 앞두고 강렬한 복면 패션으로 눈길을 끌었다.

지드래곤은 26일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 공식 블로그에 '커밍 베리 순-지드래곤 쿠데타'라는 문구가 적힌 사진을 공개했다. 스모키 메이크업을 한 채 검은색 니트 소재의 복면으로 얼굴을 가린 모습은 쿠데타라는 단어와 조화를 이루며 음악시장의 반란을 예고하는 듯한 인상을 준다.

지드래곤은 자신의 생일인 18일 정규 2집을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마무리 작업에 심혈을 기울이며 컴백 일정을 늦췄다. 4년 만에 출시하는 솔로 정규 앨범으로 본인이 전체 프로듀싱을 맡았고 세계적인 여성 래퍼 미시 엘리엇이 피처링으로 참여해 기대감을 높인다.

팀 막내인 승리가 19일 솔로 앨범을 발표했고, 2NE1이 다음달 초 새로운 싱글을 출시할 예정이라 같은 소속사 가수들끼리의 경쟁도 관심을 모은다.

새 앨범 발표에 앞서 25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KCON 2013'에서 미시 엘리엇과 합동무대를 꾸몄다. 31일과 다음달 1일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단독 콘서트를 열고 국내 팬들에게 신곡을 최초로 공개한다.

/유순호기자

상처새겨진 얼굴 젊은 카리스마 가득

이정재표 세조 납시오

영화 '관상'서 열연 · '시대물 징크스' 깰지 관심

임동진·서인석·김영철·유동근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사극 연기의 달인들로 통하는 이들 모두 수양대군(세조)을 연기한 적이 있다는 것이다.

댄디가이 이정재가 다음달 11일 개봉될 새 영화 '관상'에서 이처럼 쟁쟁한 선배들이 거쳐갔던 수양대군으로 변신한다. '조카를 죽인 비정한 숙부'와 '조선의 왕권과 기틀을 다진 군주'로 평가받는 문제 인물을 통해 그동안 차곡차곡 쌓아온 연기 내공을 마음껏 발휘한다.

우선 이정재는 기존의 수양대군과 외모부터 다르게 접근했다. '왕과 나'의 임동진을 시작으로 '한명회'의 서인석, '파천무'의 유동근에 이어 2년전 방송됐던 '공주의 남자'의 김영철까지 중장년의 묵직한 연륜을 강조했던 것과 달리, 상처가 새겨진 얼굴로 젊은 카리스마를 과시한다.

얼굴의 상처는 수양대군이 평소 사냥을 즐겼다는 역사 기록에서 힌트를 얻은 이정재 본인이 직접 제안한 설정이다.

권력을 향한 욕망에 몸부림치면서도 천박하지 않아 보이는 분위기를 뽑아내기 위해 표정·발성·동작 등을 모두 뜯어고칠 만큼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연출자인 한재림 감독은 "왕좌에 오르려 피의 살육극을 벌이지만 태생적인 품위가 묻어나는 수양대군의 모습에서 영화 '하녀'의 이정재가 떠올랐다"고 캐스팅 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정재로선 이번 작품이 시대물 징크스를 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하다. 연기 생활 20여년 동안 1999년작 '이재수의 난'과 2008년작 '1724 기방난동사건'으로 두 번 시대물을 경험했지만 모두 흥행에 실패했다.

특히 '이재수의 난'는 이정재 스스로도 여러 자리 공사석에서 "정말 연기를 못했다"고 털어놓은 만큼 아쉬움이 많이 남는 작품이다.

올 2월 '신세계' 개봉을 앞두고 만났던 그는 "지금까진 시대물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나 자신도 어느 정도 연륜이 쌓이고 송강호·김혜수·백윤식 등 좋은 선배들과 함께 한 '관상'은 다를 것"이라며 성공을 자신해 '관상'의 흥행 여부에 영화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조성준기자 when@metroseoul.co.kr

w.ell8686@naver.com

태국 상류층 가정의 성적 방종

'잔다라 더 비기닝' 내달 5일 개봉 · 현지 꽃미남들 알몸연기

2PM 닉쿤에 버금가는 태국 꽃미남들의 과감한 알몸 열연을 앞세운 에로 서사물 '잔다라 더 비기닝'이 다음달 5일 국내에서 개봉된다.

태국에서 30년동안 판매 금지됐던 동명의 소설을 스크린에 옮긴 이 영화는 순진한 소년에서 욕망의 노예로 전락해 가는 주인공 잔다라의 삶을 통해 태국 상류층 가정의 성적 방종을 그린다.

2001년 개봉됐던 종려시 주연의 '잔다라'의 프리퀄에 해당되며, 성묘사의 수위는 한층 높아졌다. 지난해 1월 북미 최대 영화시장인 아메리칸 필름마켓에서 공개 됐을 당시 세계 각국에서 온 바이어들이 입을 다물지 못했을 정도다.

/조성준기자

8월 한국영화 2천만 첫 돌파

한국영화 관객이 사상 처음으로 월 2000만 명을 돌파했다.

26일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에 따르면 8월 1일부터 25일까지 한국영화를 본 관객은 2436만 463명이다.

이는 '7번방의 선물'과 '베를린'이 쌍끌이 흥행을 한 지난 2월의 1809만 명과, 도둑들'이 흥행한 지난해 8월의 성적(1701만 명)을 넘는 수치다.

한국영화가 8월 역대 최대 관객수를 동원한 까닭은 봉준호 감독의 '설국열차'(860만 명)를 비롯해 '더 테러 라이브'(540만 명), '숨바꼭질'(407만 명), '감기'(270만 명)가 모두 흥행에 성공해서다.

이에 따라 한국영화 월 매출액도 역대 최대인 1456억 원을 기록했다.

/박근현기자 ssk0427@

전국민 기초영어 프로젝트 New English 900

What color is your purse? 사물 묘사하기

영어 통문장 익히기

▶ 우리말 먼저 보고 영어로 0.5초 내로 말하기 도전!

당신의 핸드백은 무슨 색인가요?
저 여행 가방은 무게가 얼마나 나가요?
이 원탁은 무게가 45파운드 정도 나가요.
당신은 어떤 크기의 여행 가방들을 갖고 있어요?
이 소재는 촉감이 부드러워요.

▶ 이제 두 번 큰 소리로 말하고 따라해보세요.

What color is your purse?
How much does that suitcase weigh?
This round table weighs about forty five pounds.
What size suitcases do you have?
This material feels soft.

반복 훈련으로 자동 말하기

▶ 빈칸 대화 완성

[illegible]

A 무슨 색 is your purse?
B It is light red.

정답 What color

New English 900 공식 카페 e900.co.kr
출처 New English 900 Vol 7

▶ 패턴 훈련

각 단어를 넣어 말해보세요.

1. How much does that [table / bag] weigh?

2. This cloth feels [soft / hard and dry].

수나 양을 나타내는 말(1)

▶ 셀 수 있는 명사와 함께 쓰는 수량어

one 하나의	some 약간의(긍정문)
two, three ... 둘, 셋	any 조금이라도(부정문, 의문문)
a few 약간의	many 많은
few 거의 없는	a lot of[lots of] 많은

▶ 통문장으로 핵심문법 확인. 다음 문장을 두 번 말해보세요.

1. I have two sisters. 전 누나가 두 명 있어요.
2. Jacob has a few books. 제이콥은 책이 몇 권 있어요.
3. There aren't any chairs. 의자가 하나도 없어요.

TOEIC ▶ ETS TOEIC Test RC 공식실전서 1000

01. This mobile phone is an updated version of the ______ model.
(A) origin (B) origins
(C) original (D) originally

02. Sleeping-car passengers will be provided ______ the bedding they need for the journey.
(A) with (B) for
(C) to (D) of

01. [illegible]
해설 명사 model 앞에서 명사를 수식하는 자리에는 형용사인 (C) original이 와야 한다.
어휘 origin 기원, 근원 originally 원래
정답 (C) original

02. [illegible]
해설 provide A with B의 형태로 'A에게 B를 제공하다'라는 의미로 자주 쓰인다. [illegible]
어휘 sleeping-car [illegible] bedding [illegible] journey [illegible]
정답 (A) with

TOEIC Speaking ▶ Jump Up TOEIC Speaking Intermediate

Part 4. Respond to questions using information provided

질문 유형 파악하기

■ 틀린 정보를 묻는 경우

Q I was told that it will finish at 5 p.m. Is this right?
[illegible]
A No, it isn't. It will finish at 5:30 p.m. [illegible]

Q I heard that we will have lunch somewhere outside, right?
[illegible]
A No, actually. We will have lunch in the main cafeteria.
[illegible]

■ 맞는 정보를 묻는 경우

Q I was told that the CEO will give an opening speech, right?
[illegible]
A Yes. At 9 a.m., Jacob Gray, the chairperson, will give an opening speech.
[illegible]

상금은 한푼도 못 받지만…리디아 GO!

캐나다오픈 2연패 – LPGA 사상 첫 아마추어로 2승

뉴질랜드 교포 소녀 리디아 고(16·한국 이름 고보경)가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캐나다 오픈에서 2년 연속 우승했다.

리디아 고는 26일 캐나다 앨버타주 에드먼턴의 로열 메이페어 골프장(파70·6403야드)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날 4라운드에서 버디 7개와 보기 1개를 더해 6언더파 64타로 합계 15언더파 265타를 적어내며 정상에 올랐다.

지난해 이 대회에서 LPGA 투어 사상 최연소(15세4개월)로 우승했던 리디아 고는 이번 정상 등극으로 프로 대회에서 4승을 낚았고, 세계 랭킹을 9위에서 7위로 끌어올렸다. 그러나 아마추어 신분인 탓에 우승 상금 30만 달러(약 3억3000만원)는 받지 못했지만 대신 10언더파 270타로 준우승을 차지한 카린 이셰르(프랑스)에게 돌아갔다. 경기후 리디아 고는 "LPGA의 역사는 잘 모르지만 내가 역사의 일부가 됐다니 정말 멋진 일"이라며 "프로 전향 여부는 부모와 상의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메이저 대회 7승을 노리던 박인비(25·KB금융그룹)는 공동 13위(4언더파 276타)에 머물렀고, 김인경(25·하나금융그룹)이 공동 5위(8언더파 272타)에 올라 한국 국적 선수로는 가장 좋은 성적을 냈다.

/조성현기자 when@metroseoul.co.kr

리디아 고가 우승 트로피를 들고 천진난만하게 웃고 있다. /AFP 연합뉴스

동점골 '칼날 크로스' 김보경 평점7

김보경(24·카디프시티)이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에서 기지개를 켰다.

카디프시티는 25일 영국 웨일스의 카디프시티 경기장에서 열린 2013-2014 프리미어리그 2라운드 맨체스터 시티(이하 맨시티)와의 홈 경기에서 3-2 역전승을 거뒀다.

공격형 미드필더로 선발 출전한 김보경은 전반 4분 상대 페널티 박스 근처에서 반칙을 유발해 프리킥을 얻어내는 등 경기 초반부터 활발한 몸놀림을 과시했다.

0-1로 뒤지던 후반 8분 김보경은 골 지역 오른쪽을 파고들어 낮은 크로스를 올렸고, 이를 받은 킴벨의 슛이 골키퍼에게 막히자 군나르손이 다시 슈팅으로 연결해 기어코 동점을 이뤘다. 이날 김보경의 활약에 영국 스카이 스포츠는 팀내에서 5번째로 높은 평점 7을 매기며 "프리미어리그에서 강한 인상을 줬다"고 칭찬했다.

/조성현기자

이선호의 베이스볼 카페

이치로의 부상방지 본능

스즈키 이치로(뉴욕 양키스)가 얼마 전 개인통산 4000안타를 때렸다.

그는 미국에서도 손꼽히는 베스트 툴스 플레이어다. 탁월한 컨택 능력, 내야 안타 생산력까지 더해 안타 부문에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빠른 발을 이용한 주루와 폭 넓은 수비력, 강한 어깨까지 갖췄고 경기를 읽는 영리함도 갖췄다.

더욱 높은 평가를 받는 대목은 노력과 성실성이다. 그는 풀타임 주전으로 발돋움한 1994년부터 20년 동안 단 한번도 부상 장기이탈이 없었다. 그만큼 자기관리에 철저하다. 훈련패턴은 언제나 똑같다. 오히려 음식은 편식하는 편이다. 채소보다는 불고기를 좋아하고 카레를 즐기는 정도다.

그의 모토는 부상 예방이다. "다치고 후회하지 않게끔 미리 예방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일어나서 잘 때까지 시계추처럼 똑같은 패턴을 갖고 있다. 야구장 도착과 훈련시각은 한치의 틀림도 없다. 머리에 부담을 준다는 이유로 소파 대신 딱딱한 의자를 사용한다.

헤드퍼스트 슬라이딩은 피하고 계단을 오르내릴 때는 스파이크 대신 슬리퍼를 신는다. 심지어 끝내기 승리 직후 선수들끼리 격하게 몸을 부딪칠 때도 다치지 않도록 미리 충격완화를 생각한다고 한다. 이것이 높은 연봉을 받는 선수의 자세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부상이 많은 한국 선수들이 한 번쯤은 생각해 볼 만한 자세가 아닌가 싶다.

/OSEN 야구전문기자

추신수 한 방만 더! 통산 100도루 돌파

추신수(31·신시내티 레즈)가 통산 100도루 고지를 밟았다.

추신수는 26일(한국시간) 미국 오하이오주 그레이트 아메리칸 볼파크에서 열린 2013 메이저리그 밀워키 브루어스와의 경기에서 1번타자 중견수로 출전해 3타수 1안타 도루 2개를 기록했다. 전날까지 통산 99개의 도루를 기록했던 추신수는 현재 통산 99개 홈런으로, 조만간 100도루-100홈런의 기록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시내티는 1-3으로 패했다.

/유순호기자